

지각의 열림과 상황적 공간에서의 언어의 상관관계

정은희*

- I. 서론
- II.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몸과 세계와의 관계
 - 1. 관계를 여는 언어와 몸의 지각
 - 2. 자기 아닌 것과 관계맺음
- III. 몸의 내적 공간으로서의 끌어당김
 - 1. 세계의 새로움: 생성의 열림
 - 2. 사물들: 고유한 몸(le corps propre)과의 열림
- IV. 언어의 애매성 안에서의 열림
 - 1. 의식 밖에서의 지각과 언어의 관계
 - 2. 말하는 말(parole parlante)와 말해진 말(parole parlee)
- V. 결론

I. 서론

몸에 대한 담론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근대의 철학과 과학에 있어서 주체는 표상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를 앞에 대상으로 세웠다.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는 몸이 자아의 지배를 받는 것

* 숭실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수료, 춘천교대출강.

으로 생각하여 정신과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때부터 자아만이 그 몸의 주인이라는 신념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분리, 몸에 대한 지배와 소유라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몸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몸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이다. 특히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세계를 나의 객체로 세우기 이전에 그리고 스스로 주체로서 그 객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물로 삼기 이전에 세계의 조직 속에 만지는 몸과 만져지는 몸이 있다는 이중감각을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주체와 객체, 능동성과 수동성,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각종 이원론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이중감각의 현상에서 발견한다. 이러한 이중성을 띠는 몸이야말로 두 속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이 두 속성의 질서들이 열려가는 원천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와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몸이기에 나의 존재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세계의 사물이 아니지만 동시에 세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몸'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매개체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세계와의 관계에서 세계와 일치할 수 없는 몸은 내부에 공백을 가지며, 이러한 내부의 공백과 욕망의 원천은 몸을 외부로 기투하게 만든다. 그래서 몸은 자신의 자연적 존재 너머로 말을 붙잡으며 몸은 말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자리 잡게 한다. 그렇다면 말을 몸의 표현의 양태로 삼는 것과 이러한 표현의 양태는 지각이 행동에 즉각적으로 밀착될 때 이미 제시되는가? 몸짓에 의해서 몸은 감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의미의 세계와 관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와 지각에서의 유사한 진행이 발견됨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단힌 관계가 아니라 몸은 항상 상황의 몸이고 한 개인의 세계는 세계일반과 일치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언어를 인간의 몸처럼 경험하며 언어가 세계로의 통로로서 지각하는 몸

이 세계와 나 사이의 통로임과 같이 언어가 사고와 인식을 가능케 함을 논하고자 한다.

II.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몸과 세계와의 관계

근대의 주체는 단순히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성을 어떤 대상과 '자기'를 날카롭게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역량으로 삼는 의식 혹은 정신의 주체이다. 데카르트에서 칸트를 거쳐 헤겔에 이르기까지 의식 혹은 정신에서 모든 대상들이 재구성됨으로써만 그것들이 뒤늦게 표상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모든 인식은 지각에 의해 발생하며, 지각의 원초적 구조가 반성적, 과학적 경험의 근거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메를로-퐁티가 몸의 원초적 기능을 문제 삼는 것은 '세계 내 존재'로서 우리의 몸이 갖는 '조망', '시각'을 무시하고서는 또 다시 객관적 경험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예를 들고 있듯이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객관적 공간, 즉 하나의 지점에서 그 집을 바라보게 되고, 집의 일면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며 상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망을 무시하고 집의 모든 측면이 한 번에 인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조망에 의해 조금씩 탐색되는 사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관념'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가 바라보는 몸은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대상들과 같이 객체화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앞에 세계가 존재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몸이 수많은 조망 중에서 하나의 조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몸은 외적인 대상들을 결코 완결된 체계로서 관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 세계 깊숙이 잠겨 있어서 스스로의 한정된 조망을 지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모든 조망들을 모아 '완결된 대상'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는 가

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은 상대적이며,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일정한 관점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지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주관과 객관, 몸과 정신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대립이 생기기 이전의 지각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그는 주관과 객관, 몸과 정신, 감각과 사유 이 모든 것이 그의 철학 속에선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철학함의 구별이며 고전주의와 인상주의 대립을 넘어서려는 시도라 하겠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묶일 수 없는 몸의 경험은 불가피하게 애매모호하다. 그의 철학이 애매성의 철학인 것도 이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몸은 세계 속에서 객체화된 다른 대상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몸은 세계에 대한 관점이며, 주체-주관을 형성하고, 지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몸이 하나의 철학적 문제가 되는 맥락이다.

지각의 주체인 몸과 관계를 여는 언어의 고유한 현상학은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말은 언어에 있어서 가장 즉각적이고 언어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말이 지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요소들의 조직화에 의한 변형의 결과이다. 언어 속에는 침전된 의미 말고도 말을 작동시키는 의미가 존재한다. 그것은 관습에 의한 의미에 비해 간접적이고 은밀하다. 이러한 작동하는 의미는 말 그 자체에 그것의 조직화와 변형들과 동시적이다.

1. 관계를 여는 언어와 몸의 지각

주지주의와 경험주의 모두가 이성을 담보로 하는 반성을 통해 객관성을 인식의 원천으로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지각이 경시되어왔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몸이 대상이나 세계와 관계하는 가장 근원적 방식이다. 지각은 구체적인 주체성과 대상성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근원적인 장이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원초적인 세계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세계가 지각세계이다. 지각은 모든 형태의 삶의 근원이라 믿는다. 여기에서 몸이 원초적 지각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몸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위치까지도 밝히는 것이 됨으로써 몸이 새롭게 정립된다. 그는 지각의 선행성을 이와 같이 강조한다. “우리들은 지각의 세계에서 살기로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지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이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잊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지각된 세계는 모든 합리성, 모든 가치, 모든 존재가 언제나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기초”¹⁾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지각이란 경험주의나 주지주의에서처럼 주관이나 객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원초적 만남으로서 주관과 객관이 결합하는 원초적 체험인 것으로 인간과 세계를 묶는 요체인 것이다. 이때 인간, 즉 지각의 주체인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 속에서 세계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체험하는 몸 주체가 된다.

지각의 주체는 생명을 지니고서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 자신뿐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몸의 도움으로 현전케 한다.”²⁾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몸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체험된 몸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몸이다. 또한 그는 몸이 세계와 지각된 대상들에 대한 “내 ‘이해’의 도구”라고 보기도 한다. 세계와 언어 관계성 속에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지각의 장’으로서의 몸을 전제로 한다. 완벽하게 몸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완벽한 언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이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육화된 의식인 몸의 작용이며,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 의식에

1) M. Merleau-Ponty,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Librairie Gallimard,1945), tr. (London: Routledge&Kegan paul, 1962), *Phenomenology of Reception*, Colin Smith,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30쪽.

2)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2004), 104쪽.

반영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능동적으로만 조직하는 지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고 말한다.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1대 1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각 자료들의 총합이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나의 몸이 이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³⁾

메를로-퐁티는 감각과 지각을 구별하는데, ‘감각한다는 것’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성질은 의식의 요소가 아니라 대상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감각은 지각보다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며 풍부하고 모호함을 가진다. 그러므로 순수감각이란 “무차별적이거나 순간적인 그리고 점묘적인 ‘충격’의 경험이 될 것이다.”⁴⁾ 반면 지각은 본원적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으로, 참된 지각의 현상은 “신호에 내재하는 의미작용이면서 판단의 선택적 표현이기만 할 뿐인 의미작용⁵⁾”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일종의 행동, 즉 행동 그 자신과 그 행동이 의존하는 항을 따로 떼어놓는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행동인 것이다.

전통적 지각이론과 다른 것을 발견함에는 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곧 우리가 몸이라는 것 때문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의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한, 세계의 경험을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몸과 세계로의 열림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상황적 언어와 관계된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지각한다면 몸은 자연적 장이자 지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⁶⁾

지각은 세계와 사물과 관계맺는 탈존의 양태로서 작동한다. 언어에 있어서 말을 통해 우리 몸이 세계와 연결되며 말이 탈존을 가동시킨다. 고유한 몸 안으로 끌어드리는 것이 언어다. 언어가 몸과 연관됨은 지점을 만들어내고 표현함으로 간접적 언어 침묵의 목소리가 된다. 지각의 연장으로 밖으로

3)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250-251쪽.

4) 위의 책, 20-21쪽.

5) 위의 책, 452-453쪽.

6) 위의 책, 239쪽.

의 열림이 탈존을 가동시키는데 이것은 일반관념, 표상, 기억, 되돌림 등의 탈존이 가동됨으로써 의식 관념에서 말해진 말이 된다. 몸의 공간의 지점을 언어가 정서적 몸짓으로 표현한다.

2. 자기 아닌 것과 관계맺음

메를로-퐁티는 하이데거와 달리 익명성을 몸성 그 자체에서 밝혀내고 익명성이 인간의 정체성 내지는 본래성을 구성하는 것⁷⁾임을 해명했다. 그는 우리의 몸을 이중 감각적 몸으로 보았다. 이중감각이란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왼손으로 오른손을 만질 때 대상인 오른손도 역시 감각하는⁸⁾것을 말한다. 즉 왼손은 만지는 촉각을 오른 손은 만져지는 촉각을 느낀다. 만지는 촉각을 주관적이라고 본다면 만져지는 촉각은 객관적이다. 그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만질 때 오른 손이 만지는 촉각은 주관성으로 왼손이 만져지는 촉각은 객관성으로 기능한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내가 사물들 가운데 보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그’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대상을 응시할 때 주변에는 전체의 광경으로서 다른 대상들이 있다. 내가 ‘그’ 대상을 응시할 때 그것은 나의 시각에 살아나고 펼쳐지며 다른 대상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물러나 잠자게 된다.⁹⁾ ‘그’ 대상을 보는 시각이 주관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동시에 주변의 대상을 보는 시각도 객관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이와 같은 이중적 감각이 우리와 타인과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내가 나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주체로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시각 경험에서 설명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기능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이란 타인의 존재다. 즉 내 몸은

7) 한국현상학회편, 『예술과 현상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289쪽.

8)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158쪽.

9) 위의 책, 124쪽.

자아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은 세계 속에 포함되어 함께 의식하며 나의 몸은 타인의 몸을 세계로 취급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발견한다.¹⁰⁾ 타인의 몸을 발견한다 함은 내가 아무리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타인의 몸과 연결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환경에 열려있다는 것은 감각들의 의사소통이며 우리의 눈은 시각적 장의 일부에 고정된 하나의 성질로 나타나게 된다. 감각세계의 본질, 이념은 시간과 공간의 뒤섞임과 함께 구체적인 의미들을 갖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닿을 때 나는 그 시선을 분명히 의식하며 그것을 따갑게 느끼기도 하고 따뜻하게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항상 타인의 몸과 연결되는 '타자성'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에서 타자는 특별히 누구로 지칭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로 풀이될 수 있는 익명성을 지닌 타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 확립에는 반드시 타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된 의식이 포함되어있다. 메를로-퐁티는 바로 이 점에서 익명성이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성을 획득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타자의 익명성이라는 매개된 눈을 가지고 사회를 지각하는 것이다.¹¹⁾ 결국 그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타자의 익명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익명성으로 인해 나의 몸이 사회에 참여하여 공동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언어는 다만 정식화된 의미를 위한 개념적 진술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언어가 언어공동체 내에서만,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신체적 몸짓인 동시에 신체의 음성적 표현이며 탈존의 표현이다. 언어는 몸의 연장으로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 어떤 타인의 몸짓과 탈존에 접촉되어 관계맺음이다.

10) 위의 책, 529쪽.

11) 한국현상학회편, 같은 책, 296쪽.

Ⅲ. 몸의 내적 공간으로서의 끌어당김

1. 세계의 새로움: 생성의 열림

메를로-퐁티의 “세계-내-존재”로서의 몸주체 개념은 한편으로 서양철학에 뿌리 깊은 이분법적 사유방식, 즉 인간을 주체로 세계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원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주체와 객체를 비판하면서 그는 인간을 세계와 그리고 세계 속의 타인들과 끊임없이 변증법적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는 의식한다는 것 혹은 경험한다는 것은 “세계와 몸과 다른 인간들과 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 즉 그들 곁에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본다.¹²⁾ 우리는 음료수를 먹기 위해 컵을 찾는 것처럼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애써 찾지 않는다. 이는 ‘찾는다’라는 의식적 행동 없이도 몸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현전한다. 왜냐하면 몸은 컵과 같은 나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몸이 곧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몸 이미지’¹³⁾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몸 도식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몸의 일부분들, 즉 손, 팔, 다리 등의 위치에 대한 반성 없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몸 도식은 “원초적이고 전반성적인 방향설정과 고유 운동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¹⁴⁾ 사유나 진실은 우리 몸의 지향적 움직임에 근거한 지각 행위에 입각한다는 것이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계와 세계의 사물들을 내 안으로 고유한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대화자를

12)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86쪽.

13) 몸 도식은 목적 운동, 위치, 판단 등을 의미하며, 스미스(C. Smith)는 ‘몸 이미지’(body image)로 번역하고 있다.

14) M. 랭어,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서울: 청하 출판사, 1992), 83쪽.

내 안의 고유한 몸(le corps propre) 안으로 끌어 들인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말의 범주에 적용된 몸짓은 말하는 인간이 이미 몸짓에 의해 세계를 조직하고 있는 중이고 음조와 스타일을 가지고 세계를 의미의 세계로 방향 지운다는 것을 뜻한다. 억양, 리듬, 말의 힘들은 의미가 감각적인 것 안에서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실존하게 되는 방식이다. 나의 음조, 나의 말의 스타일에 의해 나의 몸은 세계 안의 주체가 되며 동시에 세계는 나의 진리가 드러나는 베일을 벗는 장소가 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세계와 일치할 수 없는 몸은 내부에 공백을 가진다. 몸짓에 의해서 몸은 감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의미의 세계와 관계한다. 말하자면 말하는 행위와 지각에서 유사한 진행이 발견된다. 내가 매끄러운 표면을 만질 때 표면의 지각과 만지는 행위는 동시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경우에 말을 언표하는 행위가 그 말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과 구분되지 않음을 본다. 의미의 인식은 말하는 행위에 선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면서 우리는 인식한다. 말은 몸을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초월적인 운동에 속한다. 즉 말을 획득하면서 몸의 운동은 실존적인 운동이 된다. 몸이 세계와 관계에서 단힌 존재가 아닌 것 같이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세계로 열리며 들어오게 한다. 즉 지각이 세계와 나 사이의 통로가 된다고 같다.

메를로-퐁티는 말을 몸의 표현의 양태로 삼는다. 보여주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몸이다. 이러한 표현의 양태는 지각이 행동에 즉각적으로 밀착될 때 이미 제시되었다. 몸이 스스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사고나 의도가 되어야 한다. 몸짓에 의해서 몸은 감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의미의 세계와 관계한다. 말하자면 말하는 행위와 지각에서 유사한 진행이 발견된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말을 언표하는 행위가 그 말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과 구분되지 않음을 본다. 의미의 인식은 말하는 행위에 선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면서 우리는 인식한다. 말은 몸을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초월적인 운동에 속한다. 즉 말을 획득하면서 몸의 운동은 실존적인 운동이 된다. 몸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닫힌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몸은 항상 상황의 몸이고 한 개인의 세계는 세계 일반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유한 몸의 문체는 모든 것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바로 그것에서 성립된다.

2. 사물들: 고유한 몸(le corps propre)과의 열림

외적공간의 사물들의 만져짐이 고유한 몸 안에서 느끼는 점들이 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계와 세계의 사물들을 고유한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 우리의 고유한 몸(le corps propre)은 의식의 지향성에 의해 의식화된 몸이 아니라, 의식이 몸의 지향적 특성에 입각해서 자신을 세계의 사건으로 발견되게 만들어주는 몸이다. 따라서 몸의 지향성은, 단순한 몸의 반사행위 조차 객관적이고 맹목적인 자극의 결과가 아니며, 어떤 상황에 처한 몸의 지향적인 표현으로서 주관의 실존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의식의 작용은 몸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의식의 지향성은 이미 ‘몸의 지향성’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 글쓰기의 경우에 스타일, 양식으로 체화된 글쓰기는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림을 마련하기 위해, 차원을 열기 위해 존재한다. 메를로-퐁티는 유아의 동작에 의한 소통에 의한 침묵의 언어적 소여와 어린아이의 말과 작가의 말, 철학자의 말을 접근시킨다. 어린아이나 작가는 자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발화되는 말로 침묵의 세계를 변형시키고 세계가 자신이 보유한 새로움, 생성으로 열리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 몸 안에 새겨짐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를 실천함이며 그것은 말함 그 자체가 가지는 자발적인 성격을 깨닫는 것이다. 말함의 경험은 의식이 자기를 초과하는 세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하고, 의식 이전의 본래적인 나 자신이 속해있는 세계의 의미가 나의 표현 활동을 통해 강요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피할

15) M. Merleau-Ponty,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희자 옮김, (책세상, 2005), 108-109쪽.

수 없이 나의 신체를 나를 가르치는 자발성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은 자발성이 내게 가르치는 것은 자발성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다”.¹⁶⁾

언어는 사물 자체를 표현하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말화로 자리매김한다. 언어는 사유를 복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해체되었다가 사유에 의해 다시 결합될 때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언어는 사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성언어의 경험적 활용과 창조적 사용은 구별해야 한다. 경험적인 활용은 창조적 사용의 결과일 뿐이다. 경험적인 언어로서의 파롤은 진정한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파롤이 아니다. 말라르메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파롤은 손 안에 얽전히 놓여있는 못 쓰게 된 동전과 같다. 이에 반해 참다운 파롤은 무엇인가를 의미해서 결국 ‘꽃다발에 부재한 것(L'absente de tous bouquets)’을 현전하게 함으로써 사물 속에 간혀 있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 준다. 따라서 경험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참다운 파롤은 침묵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파롤은 일상적인 명칭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란 원래 사유와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자율적이다.¹⁷⁾

“내가 꽃! 이라고 말하면
내 목소리에 따라
어떠한 윤곽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망각의 밖에서,
모든 꽃다발에 부재하는 꽃송이가, 알려진 꽃들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음악적으로, 관념 그 자체가 되어 그윽하게, 솟아오른다.”

말라르메는 ‘꽃(fleur)’이라는 단어는 지각의 연장으로 밖으로 열리는 탈존

16) M. Merleau-Ponty, “*Indirect Language and the Voices of Silence.*” In *his Signs*. Trans. Richard C. McCleary. Evanston, IL:Northwestern Uni Press, 1964, 75 참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84쪽.

17) M. Merleau-Ponty, “*Indirect Language and the Voices of Silence.*” In *his Signs*. Trans. Richard C. McCleary. Evanston, IL:Northwestern Uni Press, 1964, 45. 참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27쪽.

을 가능케 한다. ‘꽃’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관념, 꽃의 관념을 불러 세운다. 그러나 여기서 꽃의 관념은 의식에 다시 나타난 꽃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꽃들을 환기시키지 않으며, 꽃 일반에 대해 다시 사유할 수 있기 위해—이해할 수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요구되는 의식의 일반적 표상이 아니다. 꽃의 관념은 꽃 일반을 대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려진 모든 꽃과는 다른 것”이고, 모든 꽃의 “부재”로서의 꽃의 주어짐(존재) 자체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꽃들을 지칭하고, 그에 따라 꽃들을 유사하게 재현(모방)하는 표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꽃들을 “떨림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하는 꽃 자체의 역동적·동사적 현시이다. 말라르메가 ‘관념’이라는 말을 빌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지칭된 사물에 대한 재현을 그 초과를 말라르메는 “모든 꽃의 부재”라고 말한다. 존재의 현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렇다면 언어는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가?

IV. 언어의 애매성 안에서의 열림

지각은 몸을 지니고서 세계 또는 상황 속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합리론이나 경험론에 따르면 지각은 감각적인 소재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소재들을 개념적인 상태로, 즉 정확하지 않은 의미를 갖지 않는 상태에까지만 종합하는 것으로 여긴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의-존재’에 있어서 지각이 몸을 통해 그리고 몸이 지각을 통해 세계 속에서 이미 참여하여 세계 속의 타인들뿐만 아니라 대상들과 의미소통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계에의 참여다”¹⁹⁾라거나 “나는 주어져 있다. 즉 나는 내가 물리적이

18) 프랑스철학과 문학비평, 한국 프랑스 철학회, (문학과지성사,2008), 104-144쪽.

19)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452쪽.

고 사회적인 세계 속에 이미 놓여있고 참여해 있음을 발견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즉 이 상황은 나에게서 결코 은폐될 수 없고 내 주변에서 결코 낯선 필연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²⁰⁾ 우리는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것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얻어진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곳으로 부더의 관점’을 의미하며, 모든 곳은 확실히 말해서 특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어떤 곳들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²¹⁾

몸은 애매성의 전체로서 상호감각, 공감각에 의해 감각의 다양성에 통일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감각의 다양성에 대한 종합과 공간지각의 통일성은 몸 도식(le schéma corporel)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종합작용은 대상을 향한 몸 도식의 지향적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몸 도식을 “몸 경험의 요약”,²²⁾ 즉 다양한 자극과 몸짓에 수반되는 무수한 이미지들의 연합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몸 도식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소적 자극의 위치뿐만 아니라, 몸의 부분적 운동을 위한 기관의 위치 변화를 지시하는 인상들의 전체를 의미하였다.²³⁾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몸 도식은 몸의 현존하는 부분들의 복사나 전체적인 앎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²⁴⁾ 세계와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팔, 다리, 머리 등 몸의 공간성은 외적 대상물들과 같은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²⁵⁾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기관들의 결합이 아니다. 가령 우리가 오른발로 공을 차려고 할 때

20) 위의 책, 413쪽.

21) E. Matthews, *The philosophy of Merleau-Ponty*(Montreal & Kingston:Mc 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48쪽.

22) 위의 책, 114쪽. 몸 도식은 몸적 운동, 위치, 판단 등을 의미하며, 스미스(C. Smith)는 ‘몸 이미지’(body image)로 번역하고 있다.

23) 김종현, 『메를로-퐁티의 몸과 세계 그리고 타자』, 『범한철학』 30집(2003), 316쪽.

24)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116쪽.

25) 위의 책, 116쪽.

자동적으로 운동이 전이되어 왼발은 공을 차는 오른 발의 축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몸의 공간은 위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나의 사지는 외부 대상처럼 지정된 위치의 공간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에 대한 투사에 의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을 향한 능동적인 몸의 정박, 자기 과제를 맞이하는 몸의 상황”²⁶⁾을 의미한다. 나의 손이 사람들이 짚어 가리키는 나의 몸의 장소로 향하듯 나는 말을 참조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나의 코를 만지려할 때 의식하지 않고 몸이 그냥 따라 가준다. 표상이전에 몸이 움직이듯이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언어가 몸의 일부가 된다.

메를로-퐁티에게 언어의 문제는 관념성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사실상 사유가 그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는 언어에로 주의의 시선을 돌린다. 왜냐하면 투명한 사유에 굴복한 자들에게 언어는 사유를 제시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관념론자들은 사유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며 언어는 사유에 의해 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말해질 수 있는 것에 말해질 수 없는 것이 존재하듯이 사유 안에 비사유가 존재한다.

언어에 관해 말하자면 말은 사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세계의 의미는 말이 존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몸이 타자들에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생동시킨다. 이처럼 말을 사유의 힘으로 이끄는 대신에 몸의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메를로-퐁티는 의미의 기원을 찾는다.

1. 의식 밖에서의 지각과 언어의 관계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로 언어적이고 상호주체적인 세계라고 규정한다. 그에게 있어서 말(parole)은 틀림없이 몸의 동작이고 그

26) 위의 책, 117쪽.

의미는 세계이다. 말이라는 몸동작에 의해 문화적으로 획득된 것이 바로 의미를 띤 목소리로 변조된다. 말이 기호가 아니고 몸짓(geste)이라고 함은 의미작용이 말에서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름이 의미를 갖기 이전에 이미 내가 누구를 부름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 말이란 몸짓의 한 국면이라고 한다. 몸짓(geste)이라는 것은 세계와 관계를 맺는 형태이다.

말은 몸짓이고 몸짓은 세계의 지형을 변경한다. 말의 범주에 적용된 몸짓은 말하는 인간이 이미 동작에 의해 세계를 조직하고 있는 중이고 음조와 스타일을 가지고 세계를 의미의 세계로 방향 지운다는 것을 뜻한다. 억양, 리듬, 말의 힘들은 의미가 감각적인 것 안에서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실존하게 되는 방식이다. 나의 음조, 나의 말의 스타일에 의해 나의 몸은 세계 안의 주체가 되며 동시에 세계는 나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 나의 몸과 세계가 의사소통하는 경험의 체계는 더 이상 구성하는 의식에 의해서 내 앞에서 펼쳐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 세계의 힘으로서의 나의 몸을 통하여 미완성의 개인으로서 나는 가진다고 메를로-퐁티는 말한다.²⁷⁾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성적 의식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려고 하거나 공통세계를 발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가 의사소통하고 누구에게 대하여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를 묻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상호 세계가 인식 불가능한 즉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상호 세계가 우리 둘에 대하여 존재해야 한다면, 그때 의사소통은 단절을 갖고오게 된다.

우리는 두 경기자가 서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체스 판에서 움직이듯, 각자 자신의 사적 세계에서 움직인다. 그 두 경기자는 여전히 전화나 편지로 자신들의 말의 움직임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세계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체가 대상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으려면, 우선 대상이 신체에 대하여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27) 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524쪽.

우리의 신체는 '즉자'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²⁸⁾

메를로-퐁티 역시 “(...) 말이 대상들과 의미들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호이기능 사물들에 거주하고 의미들을 운반한다. 따라서 말하는 자에게 말은 이미 형성된 사유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²⁹⁾고 말할 때 의미가 사유 속에서 생겨나서 대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상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곧 사유이다. 메를로-퐁티의 언어에 대한 성찰에는, 언어를 쓰고 말하고 읽고 전달하는 감각적·정서적 경험이 의미의 문제를 떠나 조명되고 있다는 데 있다. 언어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지만, 그렇다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가 가져오는 효과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유를 위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하며 사유를 개념적 진술이기 보다 스타일로서 우리의 몸이 향하는 실존적 몸짓이다.

2. 말하는 말(parole parlante)와 말해진 말(parole parlée)

메를로-퐁티는 소쉬르가 그의 구조언어학에서 최초로 구분한 주관적 언어 활동으로서의 말(*la parole*)과 제도화된 언어활동으로서의 객관적인 언어(*la langue*)의 차별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말하는 말(*parole parlante*)과 말해진 말(*parole parlée*)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의미화하는 지향, 행위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말의 측면을 뜻하고 여기서 실존은 어떤 자연적 대상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어떤 '의미'로 자신이 합치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를 넘어서 있다. 이것이 실존이 자기 자신의 비존재의 경험적 받침대로서 말을 창조하는 이유이다. 말은 자연적 존재를 초과하는 우리의 실존의 잉여이다. 후자는 이미 확립된 언어에 기댄 말, 관습화된 언어에 기초하는 말을 뜻한다. 요컨대 말하는 행위와 말해진 말의 불일치는 말하는 주체의 결여를 증명한다. 이 점은 이 둘을 동일하게 놓음으로써

28) 위의 책, 222쪽.

29) 위의 책, 278 쪽.

말하는 주체의 통일성과 자존성을 강조했던 데카르트 철학과 대립되는 부분이다.

말은 생각의 기호가 아니다. 의미 이전의 말은 그 작동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말해진 말과 말하는 말을 구분하며 말하는 말은 작동하는 지향성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해진 말은 이미 관습화된 언어의 차원에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언어적 단위들을 다시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다. 작동하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작가는 자기 문체를 발전시킬 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감각적인 세계를 안으로 담으면서 그것들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과정에 있다. 메를로-퐁티는 작동하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세계나 사물이 우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말을 만드는 과정은 바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 주체에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말해진 말과 말로 나뉘는다면 말해진 말은 관습적 언어, 약정된 언어다. 반면 말은 몸이 이런 작동하는 말은 창조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말해진 말은 언제나 반성의 차원에서 사유의 차원으로 설명되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말하는 말이나 사유하는 사유는 작동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몸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말하는 말은 말해진 말없이 불가능하다는 그 논제의 도덕적인 것 그래서 적절하게 이해하자면 언어란 즉시 말하는 것과 말해진 것 모두를 의미한다.

V. 결론

메를로-퐁티는 언어의 진술과 지각에 관한 논의를 연결시킴에 있어서 말하는 말과 말해진 말 사이에 독특한 비교 가능한 관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는 사물들을 형상화 시키고 의미화 하는 것을 벗어나서 어떠한 작품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에 관한 의미구성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와 탈존의 양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탈존은 세계와 관계맺음과 같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맺음의 사건으로, 사물의 열림의 사건으로 현전으로서 부재의 사건으로 드러난다.

몸은 실제적·가능적 일들을 겨누는 태도로서 나에게 나타나고, 몸의 공간성은 외부의 공간성과는 달리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이다. 언어가 갖고 있는 상황으로의 옮김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는 세계에 이미 열려있으면서,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환 속에 존재한다. 이는 주체가 세계에 던져지는 동시에 역으로 세계가 주체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체는 세계의-존재이고, 세계는 ‘주체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지각은 반성 이전에 세계 안에 거주함을 통하여 몸이 위치 공간성 안에서가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에서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열림과 세계가 낮설지 않음을 통한 익숙함으로 우리 몸에 거주함을 찾을 수 있다. 지각은 몸을 지니고서 세계 또는 상황 속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몸의 연장으로서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세계로 열리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관계맺음이며 세계로 열리는 통로가 지각인 것처럼 언어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몸의 공간 내에 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1세기 언어는 새로운 소통문화로서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생각의 파편들, 현실에 대한 가상의 결정체를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소통을 일으키는 문화적 인터페이스를 재현한다. 가상공간이나 이미지들은 항상 현실요소를 재현하고 있으나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의 물리성과는 이질적인 본질을 지닌다. 환경이 인간의 감정과 상호작용하듯이 가상이란 새로운 환경은 감정을 일으키며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인간의 환영에 대한 마음의 동요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재는 가상의 부분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형질로의 변화를 일으키며 진화한다. 가상은 논리적인 수학과 과학으로 대표되는 이성과 인간

의 감성 사이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며, 소통의 문을 열어 주는 21세기 언어이다.

이러한 21세기 언어들 안에 탈존을 가능케 하는 가상 안에서의 언어적 활동과 실재적 언어적 사용이 어떤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가? 가상은 단지 가상 일 뿐인가? 우리의 말하는 의도는 열린 경험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말이 자연적 존재를 초과하는 우리의 실존의 잉여로서 자기 자신을 자기 근거로 삼는 것을 넘어 기투 하고자 모이고 다시 시작하는 기능들을 사이버 상의 몸의 탈존적 의미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신체와 언어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김종현, 「메를로-퐁티의 몸과세계 그리고 타자」, 『범한철학』, 30집, 2003.
- 김화자,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05.
- 김형효, 『메를로 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7.
- 노양진, 「체험주의의 철학적 전개」, 『범한철학』 10집, 1995.
- 랭어, 모니카 M.,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우석·임약혁 역. 청하, 1992.
- 류의근, 「메를로 퐁티에 있어서 몸과 인간」, 『철학』 50집, 봄호, 1997.
- 메를로 퐁티, M.,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지성사, 2002.
-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이달승 옮김. 그린비, 2010.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 한국현상학회편, 『예술과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2001.
- 프랑스철학과 문학비평. 한국 프랑스 철학회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08.
- Matthews, E., *The Philosophy of Merleau-Ponty*,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 Thomas, Baldwin., *Reading Merleau-ponty: on Phenomenology of perception*, edited by London: Routledge, 2007.
- Gary Brent Madison, *La phenomenologie de Merleau-Ponty*, paris, Klincksieck, 1973.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 _____, *The Primacy of Perception*. Ed., James Edie. Evanston, 1964.
- _____,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 Smith, London, 1986.
- _____, *Sig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Abstract〉

Correlation of Language in the Openness of Perception and Situational Space

Jung, Eun-Hee

This Study is aimed at clarifying that the language is the path toward the world as if the body that is the subject of perception, as mentioned by Merleau-Ponty, enters into a relation toward the world experiencing the language like the human body.

Here, the language is the means that connects out bodies with the world, mobilizes ex-sistence, and pulls it into the peculiar body. Language expresses the spatial position of the body in an emotional gestures. Merleau-Ponty regards the words to be the mode of expression. Both sowing and speaking are done by the body.

Speaking to the language, the words open the world that keeps silent toward the thought for us. The world vitalizes our bodies so that the words could exist and the body could be opened to the others through words. Likewise, the words pull in the direction of the body instead of pulling with the force of thought looking for the origin of the meaning. Word is a phase of gesture. gesture means a form that enters into relation

with the world. Word is gesture, which varies the geography of the world.

Merleau-Ponty defines the world where we live as the linguistic and inter-subjective world right away. It would be possible to discover a peculiar and comparable relationship between speaking and spoken in connecting the discussions on statement and perception of the language. As if the function of language as an extension of our body of letting us into the world represents our entering into the relation and the path toward the world is the awareness, the language creates a special situation and makes the dots inside the bodily space.

Within the virtuality that enables ex-sistence in the languages of the 21st century, can linguistic activity and existent linguistic use enter into any relationship? Is virtuality just virtuality itself? The intention that we are saying can be discovered from open experience only. The words have the function that gather and start again to make projection beyond their acts of considering the natural existence as the ground. It would be necessary through this opportunity to look for the ex-sistent meaning of the body in the 21st century that creates new interface between the reason and human emotion on cyber to open the door of communication.

Key Words :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anguage of gesture,
Merleau-Ponty, language in the openness of perception,
speaking and spoken.